

2018년 경제전망과 구미지역 시사점

2018. 02. 08

2018년 경제전망과 구미지역 시사점

□ 2017년 국내의 경제현황

- [대외경제동향] 2017년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 (선진국) 미국은 2/4, 3/4분기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 일본 등의 선진국 경기 또한 완만히 회복
 - (신흥국) 중국, 인도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은 2017년부터 회복세가 강화
 - (세계교역)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세계교역 확대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교역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세계경제성장률	3.4	-	-	-	-	3.2	-	-	-
선진국	2.2	-	-	-	-	1.7	-	-	-
미국	2.6	0.6	2.2	2.8	1.8	1.6	1.2	3.1	3.0
유로지역	2.0	0.5	0.3	0.5	0.6	1.8	0.6	0.7	0.6
일본	1.1	0.5	0.5	0.2	0.4	1.0	0.3	0.6	0.3
신흥개도국	4.3	-	-	-	-	4.3	-	-	-
중국	6.9	6.7	6.7	6.7	6.8	6.7	6.9	6.9	6.8
인도	8.0	9.1	7.9	7.5	7.0	7.1	6.1	5.7	6.3
브라질	△3.8	△5.2	△3.4	△2.7	△2.5	△3.6	0.0	0.4	1.4
러시아	△2.8	△0.4	△0.5	△0.4	0.3	△0.2	0.5	2.5	1.8
ASEAN-5	4.9	-	-	-	-	4.9	-	-	-
세계교역증가율	2.8	-	-	-	-	2.4	-	-	-

자료: 연간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10)

분기자료-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브라질 IBGB,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 1) 분기성장률(미국-전기대비연율, 일본, 유로존- 전기대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

3) 세계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국내경제동향]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 가속

-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부문 중 소비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GDP)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소비 증가세의 완만한 흐름과 건설투자 증가세의 둔화 속에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

* 실질 GDP(전기비, %): (2016.4Q) 0.5 → (2017.1Q) 1.1 → (2017.2Q) 0.6 → (2017.3Q) 1.4

* 실질 GDP(전년동기비, %): (2017.1Q) 2.9 → (2017.2Q) 2.7 → (2017.3Q)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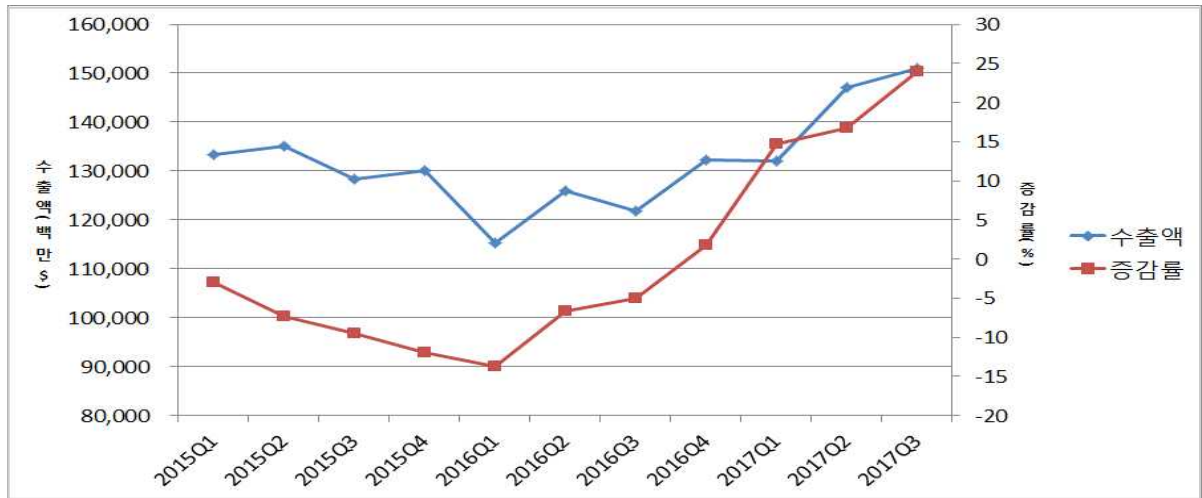
- (내수)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모습이나, 민간소비가 불확실성 해소와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설비 투자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비교적 크게 확대

* 민간소비(%): (2016.4Q) 1.5 → (2017.1Q) 2.0 → (2017.2Q) 2.3 → (2017.3Q) 2.4

* 설비투자(%): (2016.4Q) 2.0 → (2017.1Q) 14.4 → (2017.2Q) 17.3 → (2017.3Q) 16.8

* 건설투자(%): (2016.4Q) 11.6 → (2017.1Q) 11.3 → (2017.2Q) 8.0 → (2017.3Q) 7.5

- (수출)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수출확대 등에 힘입어 올 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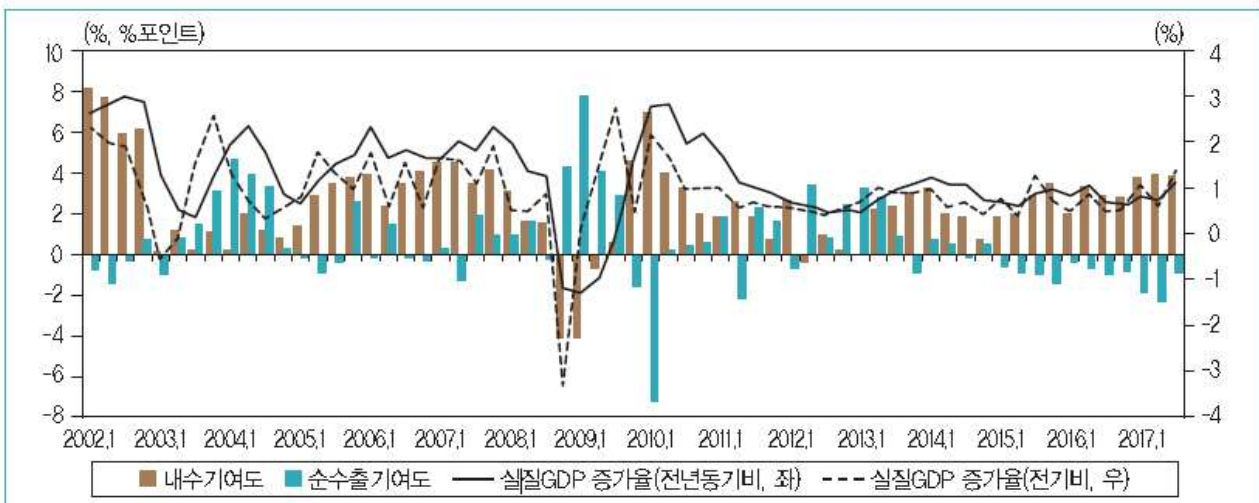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 (생산) 대외여건의 개선과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인해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최근 들어 동반 확대

* 광공업(전년동월비%): (2017.06) -0.4 → (2017.07) -0.3 → (2017.08) 2.3 → (2017.09) 8.4

* 서비스업(전년동월비%): (2017.06) 2.1 → (2017.07) 2.3 → (2017.08) 2.1 → (2017.09) 5.4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 [2018년 세계경제 전망]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과 개도국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약간 더 높아질 전망이며, 권역 간 차별적인 통화정책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변수
 - (선진국) 주요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 추진력 약화,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남유럽 은행 리스크 불확실성, 일본의 임금상승 및 소비부진 등의 하방 리스크로 인해 선진국 경기 회복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신흥국) 중국은 완만한 둔화, 인도는 성장세 확대, 브라질은 경기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등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세계교역) 선진국 경제의 회복둔화와 브렉시트 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 리스크로 세계교역 증가율은 소폭 둔화
- [국제유가] 2018년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OPEC 감산 합의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원유 및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원/달러 환율] 2018년 원/달러 환율은 신흥권 및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이 원화 강세요인으로,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등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17년 대비 제한적 하락이 예상

2018년 수출입 환경 전망

	무역·통상환경 전망
세계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는 생산 및 무역 회복,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성장세 확대 *세계경제 성장률(IMF) : ('16) 3.2% →('17^p) 3.6% → ('18^p) 3.7%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20원 내외로 금년 대비 하락할 전망 *강세요인: 한국의 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경상수지 적자, 한·중 관계 개선, 미국 정부의 원화 절상 압박, 韓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약세요인: 미국 금리인상,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양호, 美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 브렉시트 협상, 북핵리스크
국제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50달러 중반을 기록할 전망 *상승요인: 세계경기 회복(수요↑), 사우디 등 산유국 지정학적 불안, 베네수엘라 디폴트 위기, 트럼프 이란 핵협상 불인증(공급↓) *하락요인: 미국 셰일오일 생산증가(공급↑),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개도국 경제성장 둔화(수요↓)
통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로 총 57개국과 16건의 FTA 발효 전망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등 기체결 FTA 추가 자유화 논의 •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우려

자료: 무역협회, TRADE FOCUS (2017.11)

○ [2018년 국내경제 전망] 2018년 실질 GDP 3.0% 성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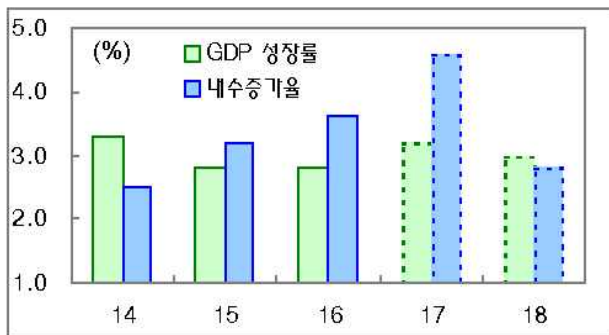
- 2018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만, 소득 및 고용 여건의 개선과 정부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며 3% 성장률을 예상

(단위: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2.8	3.3	3.1	3.0	2.9	3.0
민간소비	2.1	2.5	2.3	2.7	2.6	2.7
건설투자	9.4	4.1	6.5	-1.3	0.3	-0.5
설비투자	15.9	11.5	13.7	3.7	3.3	3.5
통관수출 (억달러, %)	2,792 (15.7)	2,935 (15.5)	5,727 (15.6)	2,960 (6.0)	3,073 (4.7)	6,033 (5.3)
통관수입 (억달러, %)	2,343 (21.3)	2,403 (12.8)	4,745 (16.8)	2,489 (6.3)	2,622 (9.1)	5,111 (7.7)
무역수지	449	553	982	471	451	922

자료: 산업연구원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17~18은 정부전망)

세계교역량과 수출물량 추이



자료: IMF, 한국은행

- (수출) 세계경기 회복의 지속으로 수출물량 증대가 유지될 것이나, 수출단가 둔화와 '17년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연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질 전망
 - * 2018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5.3%, 수입은 약 7.7%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전년(982억 달러) 보다 줄어든 약 922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내수) 설비투자의 가파른 증가세가 진정되고 건설투자도 다소 꺾이질 것이나,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득 및 고용여건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더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 소비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상반기 동계올림픽과,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점차적인 회복을 기대
 - * 설비투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나, 금년도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낮은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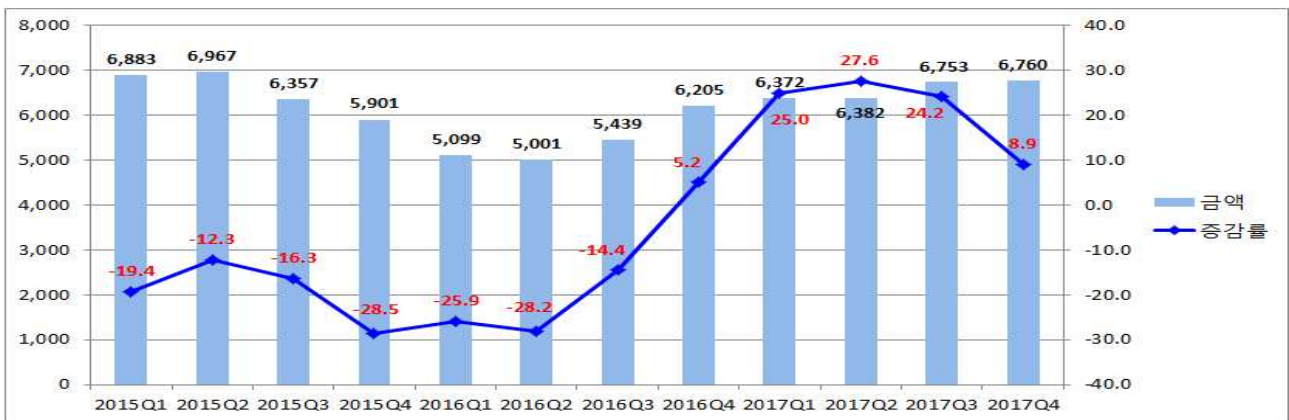
□ 2017년 지역 수출 현황 및 2018년 전망

○ 2017년 지역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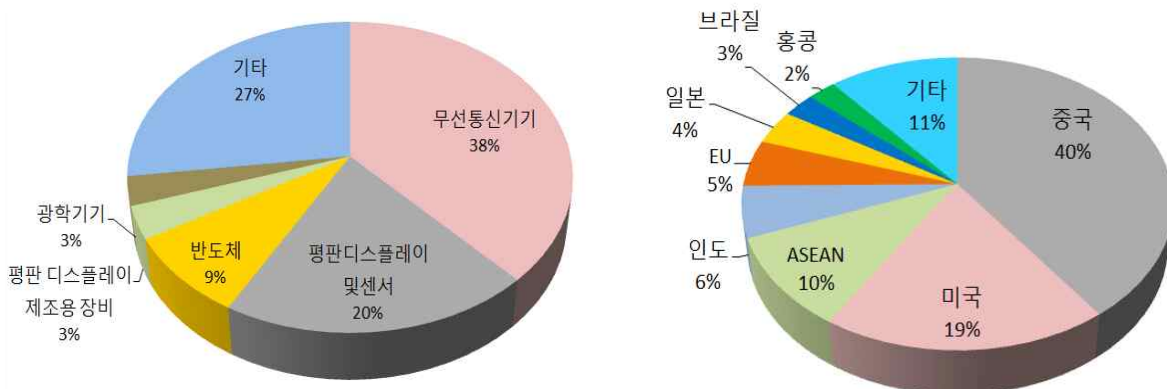
- (수출총괄) 2016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2017년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 지역의 2017년 수출액은 26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0.8% 증가
- (품목별) 지역 수출품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광학기기의 수출 증가도 눈에 띈 (MTI 3단위 기준)
 - * 무선통신기기: 99.9억 달러(전년대비 15.8% 증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52.7억 달러(전년대비 5.7% 증가), 반도체: 22.2억달러(전년대비 21.2% 증가)
- (국가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ASEAN과 인도, EU의 수출 증가세 및 비중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음
 - * 중국(수출비중의 39.9%): 전년대비 15.3% 증가한 104.9억 달러. 미국(비중 18.9%): 전년대비 13.7% 감소한 49.7억 달러 ASEAN(비중 10.3%): 전년대비 165.6% 증가한 27억 달러(베트남의 비중이 78%를 차지)

구미 분기별 수출변화 추이

(단위: 백만\$, %)



2017년 구미 품목별,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무역협회




○ 2017년 지역수출평가

- 세계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경기 호황 및 ASEAN·인도·EU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등이 수출호조에 기여
 - * 전국 수출 증가율: 15.8%, 지역 수출 증가율: 20.8%
- 무선통신기기 품목은 미국에서 큰 폭으로 하락(-22.3%)했으나,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78.1%) 지역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로 이끌었음
- 베트남은 해외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계측제어분석기 등 부품 및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239.1% 증가)
 - * 품목별 수출증가율: 반도체 563.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473.4% (품목의 구미시 총 수출의 86.5% 비중 차지)
- 지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미국 비중은 높은 편이나 점차 ASEAN, 인도, EU 등으로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다변화가 나타남

○ 2018년 지역 수출 전망

- IT 제품의 고도화와 IT 부품의 수요산업 확대 등 IT 산업 전반적인 업황 개선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상승 예상
 - *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 기조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2018년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정보통신 기기	전년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확대, SSD 및 제품 고급화에 따른 핵심부품 중심 수출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	
	디스플레이	OLED의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출하량 감소, 중국기업들의 8세대 이상 생산라인 가동 확대, 국내 업체의 중국 패널공장 생산확대 등 수출제약으로 소폭 증가 예상	
	반도체	D램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이나, 반도체 수요는 지속 확장되는 반면 공급확장은 제한적이고, 공급자 주도형 생산량 조절을 통한 경쟁력 우위로 수출호조세는 지속되어 높은 증가가 예상	

자료: KIET 산업경제이슈, '2018년 11대 주력산업 전망' 채구성 (2017.12)

□ 지역경제 시사점

○ 중소기업 수출 참여도 확대, 벤처기업과 수출 강소기업 육성

-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경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 전략 수립
 - *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촉진,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 강화,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및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수출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R&D 우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
- 중기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
- 글로벌 시장 접근 강화 및 수출 경쟁력 개선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술적 변화 주시
 - 현지의 산업협회·KOTRA 등과 협력, 현지 맞춤형 전략컨설팅, 현지 유통채널 확보, 현지개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 고부가가치 산업 및 고기술 산업의 적극 육성
 - 기초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
 - * 지역 기업의 수출기업 수는 총 2,685개 기업 중 381개로 14.3%에 불과하며, 수출기업 중 완제품 수출기업은 45.7%, 중간재 수출기업은 54.3%를 차지 (2016년 기준, 구미 제조업 실태조사)
 -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있는 중간재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이 증가해도 중간재 수입에 따르는 부가가치 유출을 방지
 - 소재 등 중간재를 첨단기술형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여 중·고위 기술 부문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전략을 마련